

경북도 공영쇼핑몰 '사이소'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경북도는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2023년말 매출액이 455억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소' 매출액은 455억원으로 전년 382억원 대비 19%가 증가했고, 입점농가 수는 2,223호로 전년 1,821호 대비 22%가 늘어났으며, 회원 수는 132,506명으로 전년 86,746명 대비 53% 증가했다.

월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설,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1월(51억원), 9월(106억원)이 157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35% 차지했으며, 4/4분기 10월(67억원), 11월(67억원), 12월(33억원) 실적은 167억원으로 1월, 9~12월

5개월간 실적이 324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71%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명절 및 연말, 연시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발맞추어 '사이소'에서는 명절 선물기획전, 연말 할인전, 수산물 기획전 등 시기별·주제별 소비자 맞춤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부터 소비자 접근성 향상, 제품 다변화, 통합마케팅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3년에 걸쳐 2023년도 단위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완료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쇼핑을 회원관리, 등록상품, 결제 및

정산을 통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고객 대응과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졌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사이소' 뿐만 아니라 시군 쇼핑몰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역별 다양한 상품과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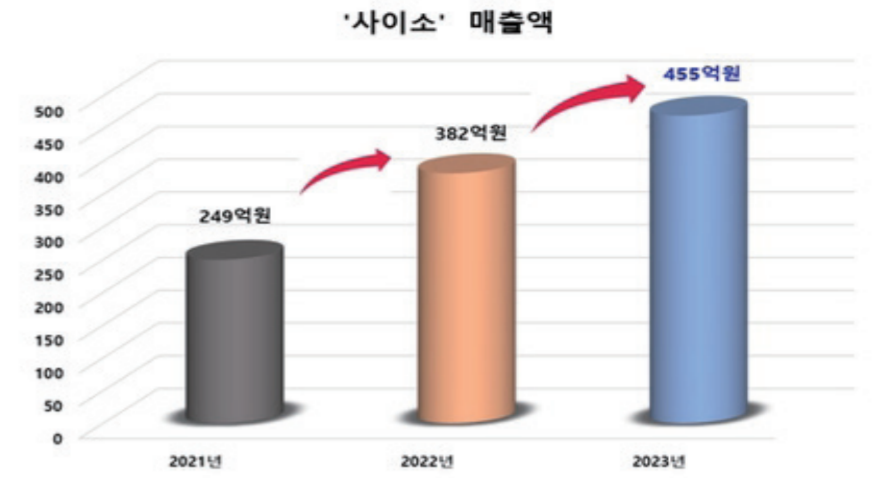
아울러, '사이소'에서는 공공쇼핑몰로서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례없는 극한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돕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상공인 구독경제지원사업, 도보건정책과 출산축하 쿠폰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도는 2024년 매출액 500억원, 회원 수 15만명과 입점 농가 2,500호 유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이소 홈페이지 및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형 민간 온라인 쇼핑몰 수준의 사용자 환경을 구축하고, 사이소·시군 통합 마케팅을 통해 홍보예산 절감, 판로확대 등 저투입, 고효율 마케팅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특산물통국장은 "지난해 경기침체, 고물가,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이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비자와 입점농가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도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고객 맞춤형 행사, 타 기관 협업 등을 지속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쇼핑몰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김영록 지사, CES서 식품기업 유치·글로벌 미래비전 선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에서 미국 식품기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협약을 하고, 전남도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전남 혁신기업의 수출협약도 진행됐다.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주관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전시회다. 올해 '모든 기업과 산업이 함께 혁신기술에 전력을 다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전남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관을 운영한다. 9일(현지시간) 열린 전남관 개관식에는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과 박성진 포스코기술투자(주) 대표,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관 운영을 통해 전남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참가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전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진 대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만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며 참여 기업을 격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미국 식품가공기업 치맥스, H마트와 전남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2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치맥스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에서 175억 원을 투자해 주스 제2공장을, H마트는 영광 대마산단에 65억 원을 투자해 떡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치맥스는 지난 2006년 설립해 코스트코, 크로거, 노스게이트 등 대형마트 약 1만 개 지점에 식품을 납품하고 있다. 2018년 고흥 동강청정식품단지에 자회사인 (주)에인티엔지를 설립해 미국에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H마트는 1982년 설립된 미국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다. 지난해 기준 북미 지역에 120여 매장을 운영, 매출액 4

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김영록 지사는 "미국 내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치맥스, H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을 확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관식에서 (주)휴먼아티슬루션은 미국에 진출한 코스닥 기업 (주)토마토시스템, 리모트케어포유와 각각 300만 달러의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 헬스케어 제품 수출협약을 했다. (주)휴먼아티슬루션은 또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해피소나(대표 고종욱)와 투자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전을 마련했다.

전남의 (주)로우카본, 미국의 스페이스 플로리다, 오션 그린 하이드로젠사, 3사는 탄소 포집 기술과 우주 탐사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협약을 했다. (주)로우카본과 오션 그린 하이드로젠사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산업 육성 상호협력 협약을 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024년 새해 맞아 새 단장 마친 신규 로비 공간 오픈

관람객 중심의 안내데스크 및 뮤지엄숍 리모델링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로비 환경 마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작년 하반기 박물관 숙원 사업이었던 '로비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로비 매표·안내 데스크, 뮤지엄숍 등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4년 새해를 맞아 신규 공간을 선보인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람객과 내부 직원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람객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VOC)' 및 박물관 내 자체 TF팀을 꾸려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내부부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 왔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그동안 협소한 로비 대기 공간으로 인해 여름철·겨울철 관람객 입장 시간에 1시간 이상 야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사항(VOC)'에서 불편 사항이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로비 개선 사업에 공간의 구조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람객 내부 대기 공간 마련과 이동 동선 편의성을 설계 기획 단계부터 검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된 로비 공간은 실내 대기 공간 규모를 약 21.15㎡(6.40평)에서 약 71.40㎡(21.60평)으로 기존 면적대비 3배 이상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관람객 내부 대기 인원을 최대 168인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쇄적 구조의 기존 매표소를 로비 중앙으로 옮겨 개방적 형태

로 탈바꿈하고, 동떨어져 있던 매표소와 안내데스크 간 거리를 좁혀 관람객들의 편의 도모 및 이용 동선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뮤지엄숍 계산대 및 상품 매대 일부를 신규 매표·안내 데스크의 깨끗한 색상과 분위기에 걸맞게 교체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개방적인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로비 리뉴얼 과정에서 외부 관람 이용객뿐 아니라 내부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설계부터 가구 디자인 전 과정에 걸쳐 내부 이용자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기존 매표소 면적 7.16㎡(2.16평)에서 14.30㎡(4.33평)으로 2배가량 업무 공간을 넓힘으로 직원 업무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안내 데스크 수납장 위치, 크기 등 세부 사항

지 논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신규 로비 조성에는 매표·안내 데스크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주 이용층인 어린이 관람객 응대에 유연한 시설 구조를 만들고, 친환경 재료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어린이 관람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관람 정보 전달을 위해 주로 활용되던 종이 인쇄물을 디지털 사인물로 교체하여 친환경적 관람환경에 앞장선다. 또한, 공간 내 친환경 바닥재, 친환경 페인트, 천연 자작나무 등 실내공기 오염도 및 유해 물질을 줄이는 친환경성 재료와 방역 목적, 방역 커튼을 사용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도 어린이 대상 공간에 적합한 시설을 마련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송문희 관장은

"모두에게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는 우리 박물관이 앞으로도 시설을 사용하는 내외부 이용자의 불편 사항과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반영하고,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친화적인 박물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더 좋은 전시콘텐츠와 관람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관람객의 신규 체험 콘텐츠 요구 반영과 더불어 도내 공공박물관으로서 도정 캐릭터를 통한 도정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로비 유휴 공간을 활용 '봉공이' 홍보 체험 공간(약 16.67㎡ / 5.04평)을 별도 마련했다. 해당 공간은 '변화의 방', '기회의 사무실', 즉석 사진기 촬영 공간으로 나누어 공간별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3종의 전시 체험물을 설치했다. 박물관은 올해 뮤지엄숍에서 경기도 자체 개발 상품인 봉공이 캐릭터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월 13일~14일에는 로비 리뉴얼 기념과 봉공이 홍보 체험존 오픈을 맞아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대상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로비 리뉴얼 기념 이벤트 및 봉공이 홍보 체험존 안내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공식 누리집과 SNS 계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20TH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2024. 7. 16. — 7. 20.

2024년 갑진년(甲辰年)
 건강과 함께 뜻 깊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WASBE
 WORLD ASSOCIATION FOR SYMPHONY BANDS AND ORCHESTRAS

20TH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광주시
 GWANGJU CITY

광주문화재단
 GWANGJU CITY CULTURAL FOUNDATION

연합뉴스TV

Official Site
 wasbe2024.com

이천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기초반 8기 교육생 모집



이천시는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이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기초반 [8기] 수강생을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천시는 농산물가공사업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안내 및 시설 관람을 시작으로 농산물가공 창업의 시장전망, 내 사업 방향 잡기, 농산물가공 기본 다지기, 사업장 위생관리, 인허가 절차, 사업계획 작성 등 총 10회에 걸쳐 2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비창업 실무 이론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의 90%를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기초반, 심화반) 1년, 가공장비활용교육(실전반) 1년,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교육 2년(창업코칭반)의 총 4년 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가공장비 활용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고 가공센터 내 기반 시설을 이용해 음료, 잼, 분말, 말랭이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9년 중공 이후 농산물의 가공 기술, 제품 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지원하여 농산물가공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가공사업 진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1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진행

신년을 맞이하여 8일 신장·덕풍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를 방문하는 '1월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진행

하남시가 하남시체육회 임직원들과 함께 신장·덕풍 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를 방문하여 '1월 전통시장 가는 날' 정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매월 1회 이현재 시장과 지역 내 단체들이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기회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8일 이현재 시장과 최진용 하남시체육회 회장 등 행사 참석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직접 장바구니를 이용해 장을 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매진했다.

특히, 이날 이현재 시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한명 한명의 고충을 청취하고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전통시장 가는 날'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장상권진흥구역 간판 정비 및 이정표 설치 등 거리디자인 실행 ▲신장전통시장 고객 전용 주차장 내 승강기 및 무인정산기 설치 등 주차시설 현대화 ▲덕풍전통시장 노후 비가림막 및 간판 개선 등 추진 ▲하남수산물전통시장·석바대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고객서비스·공용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확충 ▲행정처리 및 고객편의를

위한 시장별 매니저 배치 지원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추석명절맞이 큰 장날 경품행사 등 이벤트 지원 등 상권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올 상반기 독서동아리 회원 511명 모집

오는 22일부터...관내 공공도서관 18곳서 독서토론·독후활동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18곳에서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독서동아리 회원 511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책을 통해 인문 소양을 넓히고 서로 소통하며 독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중앙·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양지·이동·기흥·구성·보라·홍덕·서농·영덕·수지·죽전·상현·성복도서관 등에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는 일반부(344명)와 초등부(168명)로 나눠 총 49개 동아리를 운영한다. 일반부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책과 주제를 선정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의 모임을 진행하고, 초등부는 도서관에서 제안하는 주제별 도서를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임은 오는 3월부터 월 2회 내외로 운영하며 한 동아리당 1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2일부터 각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신청코너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책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의정부시, 출생신고 기념 아기 신분증 발급 서비스 개시



의정부시 자금융동주민센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출생신고를 하는 아기에 대해 기념 신분증을 발급한다.

국내 출생아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인 가운데, 의정부시 자금융 출생신고 건수도 2022년 124명에서 2023년 8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자금융은 부모에게 아기 탄생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출생 신고하는 부모의 의사를 확인 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이즈의 아기 신분증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기 신분증의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이 기재되고 뒷

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및 키, 혈액형, 띠, 부모님 소망 등을 기재해 3개 디자인 중 원하는 디자인을 부모가 선택해 제작한다.

자금융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태어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자금융 관계자는 "아기 신분증은 출생신고를 기념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익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기 신분증 발급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양시, 안양중부새마을금고로부터 '사랑의 줌도리' 백미 기탁받아



안양시는 지난 5일 안양중부새마을금고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백미(10kg) 500포를 기탁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안양중부새마을금고는 어려운 시절에도 이웃을 위해 한 손가락씩 줌도리에 쌀을 모아 나눔을 실천했던 풍습을 배우기 위해 매년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성껏 모은 성품을 안양시에 기탁했다.

이날 명상욱 이사장과 직원들은 안양 1동과 4동, 5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백미를 전달했다.

명 이사장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올해 청룡처럼 힘찬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종록 안양4동장은 "매년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안양중부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이민청 유치' 외국인주민 지원 유관 기관장 한목소리

안산형 외국인정책과 이민청 유치 위한 협력 다져

안산시는 안산형 외국인정책 및 이민청 유치를 위한 소통을 위해 지난 8일 외국인주민 지원 유관 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안산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직을 설치해 외국인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익보호, 한국어교육, 문화체육 활동 지원, 다문화가족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을 선도해오고

있으며, 그동안의 정책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길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장, 문숙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승미 글로벌청소년센터장, 김영숙 고려인문화센터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각 기관별 2024년도 사업 계획 청취 및 안산형 외국인정책과 이민청 유치를 위해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시가 전담조직을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한지 19년차로, 최고의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유관기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올 한 해 이민청 유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할인받으세요

연납 신청하면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할인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 후 완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 신청 시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

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영/기자



순천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서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여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족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급시기는 농어업·임업인 소득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중(연 1회)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기자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4. 1. 15. 월 ~ 2. 23. 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2023.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서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

전북도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 위한 기업 현장간담 개최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완주군 등 관계자 기업 현장방문



전북도, 전라북도의회, 완주군 관계자들이 수소저장용기 개발·제조사이자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를 방문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오은미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순창·진보당), 이정근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부장 등이 운영길 일진하이솔루스 전무, 유후창 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 간담을 나누었다.

간담을 통해 일진하이솔루스는 노사 갈등 해결 방법은 오직 상호 양보와 타협만이 대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내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오늘 간담이 노사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을 수 있

다면, 기업은 더 높게 도약 할 것이다.”라며, “수소저장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초일류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1년 365일 쉬지 않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

목포시가 연중 무휴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편리한 공공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포시 공공심야약국은 유동인구가 많고 심야시간 다중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원도심에는 목포보건소 사거리 인근 ‘로템온누리약국’(산정동 소재), 신도심에는 이마트 인근 ‘비타민 약국’(옥암동 소재)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4시까지이며(심야 연장시간 : 2시간(22시부터 24시까지)), 2024년 한 해 동안 국경일·공휴일에 상관없이 1년 365일 휴일 없이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목포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9,394명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9,257건, 조제(처방) 27건, 전화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공공심야약국은 매년 새롭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는 약사가 지정된 운영시간 동안 상시 상주해야 한다.

시는 심야약국 운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희망하는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이력이 있을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개 지구 선정 쾌거

유형1 사업 1개소, 유형3 사업 1개소... 총 350억원 확보



진도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총 2개 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유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유형1 어촌 경제기반(플랫폼) ▲유형2 어촌 생활기반(플랫폼) ▲유형3 어촌 안전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3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진도군은 유형 1 사업 부문에 ‘서망항·진도항 300억원’, 유형3 사업 부문에 ‘놀목도항 50억원’이 각각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총 3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선정된 대상지는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공모를 시작으로 10월 예비계획서를 접수하고, 2개월간 서면과 현장 평가를 실시 후, 지역주민과 진도군의 철저한 준비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총 35개소 선정에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등 151개소의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나, 진도군의 2개 지구가 선정돼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망항·진도항 권역과 놀목도항 권역에 오는 2027년까지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유형1 사업에 선정된 서망항·진도항 권역에서는 4년간 진도·제주도 신규가

페리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한 수산단지(컴플렉스), 복합관광센터, 청년주거단지, 공원조성, 마을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형3 사업에 선정된 놀목도항 권역은 기항지 개선사업을 통해 낙도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대와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게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촌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관광·물류·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어촌의 활력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15개 어항에 총 사업비 66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도 2건(사업비 100억원)과 이번엔 선정된 2건(사업비 35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50억원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공직자, 적극행정 펼치면 면책된다

신안군은 2023년 12월에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

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계기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여 도전할 수 있는 문화

가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포항 기업의 눈부신 활약 'CES 2024' 세계 무대서도 빛났다

포항시의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IT·디지털 박람회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 등을 대거 수상하며,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CES 2024'에 22개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참가 중인 가운데 가장 큰 영예인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에 포항기업 6개사가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열리는 'CES 2024'는 'AI(인공지능), 로봇, 모빌리티'를 핵심 키워드로, AI가 바꾸는 미래 'All On'을 주요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CES는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총 3,500여 개사, 참관객 1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으며, 한국기업도 600개사가 참여해 중국(1,100개사)과 미국(700개사)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포항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공모절차를 거쳐 중기부·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유레카관(K-스타트업관)' 내에 미래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 5개사로 구성된 '포항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포스코·포스텍과 함께 '일방관'에도 최고의 핵심기술을 가진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등 CES 2024에 총 22개 포항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제품을 선보였다.

또 하나의 CES 관전 포인트인 'CES 혁신상'에서는 한동대 창업기업인 (주)미드바르가 '최고혁신상' 수상 쾌거를 달성했으며, (주)네이처루텍, (주)에이엔폴리, (주)그래핀스퀘어, 플로우스튜디오(주), (주)크림 등 5개사가 세계를 변화시킬 혁신기술과 제품에 주어지는 '혁신상'을 수상하며 포항이 가진 눈부신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주)임팩티브에이아이, (주)리

걸저스티아, (주)캐럿펀트는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투자자·바이어 대상 데모데이와 기업 IR(investor relations)피칭에 참가해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전 세계인의 비즈니스 제품상담과 계약 문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시는 11일(현지시간 10일)에는 CES에 참가한 지역기업 대표 및 관계자 50여 명을 초청해 '포항 DAY 네트워킹'을 개최, 포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발굴을 위한 격려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세계 혁신기술의 중심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우리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위상을 몸으로 직접 실감했다"며, "디지털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세계로 도약하는 혁신기업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CES 2024 방문단은 신산업부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김일만 포항시회 부회장을 포함한 20여 명으로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4를 비롯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윤타용/기자

"울산시 기업투자 현장지원 더욱 강화한다."

기업현장지원 특별 전담 조직(T/F) 확대 운영

울산시는 '기업현장지원 특별 전담 조직(T/F)' 확대 운영을 통해 민선8기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북구, 울주군, 소방본부에서 사업별로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T/F)을 따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전 구군까지 통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각종 인·허가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전담 조직(T/F)은 울산시 안호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무수석(부단장), 미래전략본부장, 도시국장, 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국장, 소방본부장 및 6개 지역소방서장, 5개 구군 부단체장 및 인허가 관련 부서 국장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전체회의, 분야별(구군별)회의, 비대면 서면회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월 기업 투자현황과 당면 협조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사안별 현안 발생 시 즉시 현장지원을 위한 사업장 소관 구군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역할분담을 통해 울산시는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 규제개선 및 기재부, 산업부 등의 중앙부처 대응을 담당한다.

소방분야 인허가와 구군 담당 인허가 업무는 투자기업과 분야별 인허가 담당자 간 맨투맨(Man-To-Man)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사전자문(컨설팅)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민선8기 들어 울산시의 기업지원 정

척의 성과로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에스-오일 사신프로젝트 등의 대기업 신규 투자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롯데에스케이 에너지 등의 이차전지와 수소 관련 사업들이 울산에 몰려들면서 현재 17조 6,843억 원 정도의 투자사업들이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도 적극 지원해 작년 한 해 현대차, 삼성 에스디아이(SDI) 등의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에스-오일 사신프로젝트 주창자, 야적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가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처리되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투자가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기업현장지원 특별 전담 조직(T/F)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울산시는 민선8기 시정방침에 따라 기업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 투자사업 각종 인·허가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현장지원팀'을 과단위의 '기업현장지원'단으로 확대 개편·운영하여 현대자동차, 삼성 에스디아이(SDI), 에스-오일, 고려아연 등 대규모 투자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각종 인·허가 사항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황규진/기자

"관악S밸리, 한국형 실리콘밸리 이룬다!" 관악구, CES 2024에서 미래 비전 발표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S밸리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미래 비전 밝혀

관악구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1월 9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참석해 '관악S밸리'를 전 세계로 널리 알렸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최하는 세계 3대 전자·정보통신(ICT) 박람회 중 하나로서,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홍보, 투자유치, 판로 개척 등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구는 지난해 서울통합관 내 관악S밸리관을 조성해 관내 8개 기업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관악S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CES 2024에 참가할 8개 기업을 모집했다.

관악S밸리는 지난해 서울시 서남권 균형발전 신축 추진사업으로 선정될만큼 주목받고 있는 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는 관악S밸리에 입주한 2개 기업이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관악S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직접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 방문해 관악S밸리관 참가기업을 격려했다. 또한 스타트업 전시부스가 모여 있



는 유레카관(Eureka Park)을 견학, 미래 혁신기술 동향을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관악S밸리 입주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박준희 구청장은 CES 2024 서울통합관 메인 무대에서 관악S밸리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자치구 최초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26년까지 1,000개 벤처기업 유치 ▲6,400명의 고용 창출 등 "관악S밸리를 더욱 고도

화하여 관악구를 혁신 경제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구청장은 이번 미국 출장 기간 동안 관악S밸리의 국외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풀러턴시장,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만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창업인프라 16개소 조성 ▲기초자치구 최초 200억 원 규모 창업지원펀드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및 기술컨설팅 지원 ▲기업 투자유치 지원 등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는 ▲관악S밸리 입주기업의 'CES 2022 최고혁신상' 및 'CES 2024 혁신상 수상'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연속 선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S밸리 또한 창업생태계 분야에서는 스타트업과 같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관악S밸리를 반드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시·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봉화군

기부자

지역생산자

세액공제 → 답례품

봉화군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강원도, 올림픽 개최 대비 폐기물·화장실 합동점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시군, 폐기물 및 화장실 관리 최종 점검 완료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쾌적한 올림픽 환경 구축을 위하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4개 시군과 함께 환경분야 최종점검을 1월 9일에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9개 경기장 내 폐기물 집하장 및 발생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배뉴 내의 주요화장실 관리체계, 지하수이용 올림픽 운영인력 숙소 등으로 준비 전반에 대하여 점검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 폐기물과 화장실 분야 특별관리대책을 실시한다. 경기장 주변 쓰레기 집중 수거 및 주기적 청소 등 상시 정화활동을 실시하

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하고자 4개 시군과 쓰레기대책 상황반(5개반 27명) 및 기동 청소반(50명)을 구성·운영하며, 4개 시군, 경찰서와 합동 특별점검반(8개반 20명)을 구성하여 경기장 등 화장실 범죄·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4개 시군과 함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올림픽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장영실과학관, 명실상부한 최고의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새롭게 교체하고 재개관

아산시는 장영실과학관 내 2층 장영실관 전시물을 새롭게 교체하고 체험 위주의 과학시설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장영실과학관 내 2층 장영실관은 2011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2023년 9월 전시물 교체 사업을 착수, 같은 해 12월에 완료했으며 이를 홍보하고자 9일 재개관했다.

그동안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노후화로 현대 과학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관람객 흥미 저하, 전시물 교체에 대한 민원과 불만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박경귀 시장은 "장영실과학관을 방문하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 환경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물 개선을 추진했고, 이에, 뜻깊은 재개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향후 장영실과학관 내 항공우주전시물 상설전시관을 추가로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농축산 탄소중립 선도 "농가소득 2억 실현"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 전략 수립...2045년까지 12조 3000억 투입



2억 원 △농업의 저탄소·친환경 산업화 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농업경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탄소 농업 실행 역량 기반 구축 등이며, 총 투입 예산은 12조 2855억 원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도는 우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스마트 대규모 농업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사례로 볼 때, 3ha 규모 스마트팜은 비료 26%와 물 18%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가스과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품질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보통신 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단지도 조성 추진한다.

저메탄사료 상용화 및 생산·공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도 늘린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많은 온실 효과를 부르는 가스로, 가축의 장내 발효 등으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는 고효율로 전환하거나 전기에너지 농기계로 바꿔 탄소 배출을 저감한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도 확산해 화학비

료와 농약 사용을 줄인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농업보다 온실가스를 25%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설원에 등의 경우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열회수형 환기 장치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설·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지열·공기열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영농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논물을 알개 멀 경우 상시 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63% 줄고, 중간물떼기를 하면 25.2%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 논 물 자주 빼기와 논물 알개 대기 등의 영농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농식품 유통거리 단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 확산, 생산자 중심 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농업 분야 민관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탄소중립 농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 △저탄소 농축산물 인센티브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한다.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8054억 원 △2026년~2030년 2조 2656억 원 △2031~2035년 2조 6303억 원 △2036~

2040년 3조 493억 원 △2041~2045년 3조 5349억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경지 면적은 21만 1518ha로 전국 149만 7025ha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 수는 한우 46만 7459마리, 젖소 6만 7027마리, 돼지 227만 3307마리, 닭 2868만 2469마리 등이다.

오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농축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농축산 경제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40%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경우 농가소득이 1억 원으로 도내 농가소득의 2배가 넘고 있으며, 스마트팜 도입 시 농업 소득은 평균 3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첨단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농업 기술과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2045년 농가 소득 2억 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농축산 미래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춘천 로케이션 촬영작 '외계+인 2부' 시사회 개최

춘천시 영상산업지원센터, 2024년 첫 시사회로 1월9일 오후 7시 개최

춘천시는 2024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시사회 및 로드쇼 지원사업의 첫 번째 상영작으로 영화 '외계+인 2부'의 시사회를 1월 9일 오후 7시 CGV 춘천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는 춘천 관내 영화 촬영소에서 대형 오픈세트를 만들어 촬영된 영화 '외계+인 2부'의 개봉 (1월 10일 수요일)을 앞두고,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 CGV 2개관에서 오후 7시부터 300명의 춘천시민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사전 예약을 통한 모집 결과 이미 지난 금요일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도 사전예약 취소분에 대해서 입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암살', '타짜', '도둑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의 신작인 '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심경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1월 9일 현재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르는 등 새해 극장가 흥행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봉일은 10일 수요일 이다.

한편, 춘천시 관계자는 "2024년도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화 특별시 춘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춘천에서 촬영을 하는 영화 중 일정금액의 소비액을 충족하면, 지원을 해주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을 연초 공고하여,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춘천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촬영되거나, 춘천시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영화의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주연배우들이 춘천을 방문하여, 직접 춘천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로드쇼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충북도 중부권 마이스 산업의 중심! 청주오스코 건립사업 상량식 개최

2025년 9월 개관 목표, 마이스산업 교두보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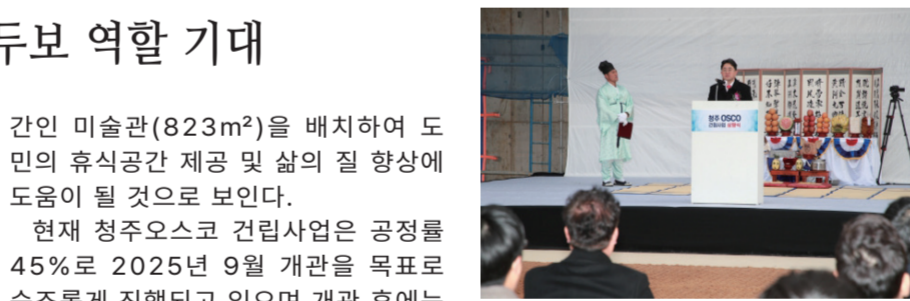
충북도와 청주시는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 오스코를 만수리 '청주오스코 건립사업' 현장에서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상량식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관에 설치되는 총 길이 1,189m, 총 중량 2,000ton의 구조를 16개 트러스 중 마지막 트러스 설치를 기념하고 남은 공정에 대한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추진경과·축

간 미술관(823m²)을 배치하여 도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오스코 건립사업은 공정을 45%로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관 후에는 중부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전시 행사 유치에 가능해져 충북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 육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중부권 마이스산업의 중심을 목표로 건립 중인 청주오스코가 충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사



랑하는 글로벌 전시·컨벤션센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도의 신성장산업과 마이스산업을 연계하는 융·복합의 혁신 플랫폼이 되어 우리 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태백시-정보산업고-새마을금고-태백농업협동조합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식 체결

태백시는 지난 9일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석수 태백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인희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과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지난 4일 체결된 '태백 한마을신용협동조합'과의 협약 이후 두 번째로 체결된 협약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관은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직업교육 능력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출범과 산학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내 금융기관과 세무회계법인의 업무협약이 차레차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교육 여건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앞으로 태백시는 2026년 한국세무금

용고등학교 출범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3개소 및 관내 세무회계법인 3개소

와도 차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상근/기자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공직문화 '청렴 1번지' 자리매김

다양한 청렴 시책으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내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등급'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국민권익 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498곳으로 이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주시, 질병관리청 등 전국 단 6개 기관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청렴 최우수도시'임을 입증한 것이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수립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2021년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2022년 1등급으로 수직 상승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감도 높은 반부패 자정 노력에 힘입어 2023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설문을 통한 청렴체감도(60%)와 기관의 청렴노력도(40%)를 종합 합산하여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데,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전국 시(市) 그룹 평균보다 무려 11.8점이 높았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및 기반 마련,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 점검 노력 등의 향



여주시는 만점을 받아 반부패를 위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자정 노력이 '2년 연속 1등급'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기관 내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주시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패 경험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부패행위 공직기강 감찰 등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첫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높아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반영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공직자 및 대민행정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해온 여주시는 2023년에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0개 이상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여주시는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청렴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청렴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양화했다.

특히 매달 운영하는 '청렴·소통의 날'은 직원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여주시의 청렴 시책이다. 부서별로 청렴 리더를 지정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 시책을 자유롭게 발굴하여 토론회하고 소통하는 '청렴·소통의 날'을

통해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고 공감도 높은 반부패 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여주시의 평가다. 시장 주관 청렴회의체는 출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에 여주시가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 구성한 조직이다.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화하여 청렴한 업무추진 및 행정서비스 효과성 향상 등을 위해 관내 직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선 요청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반부패 실천 의지 전파를 위한 청렴 서한문 발송 및 부패방지 신고센터 운영 확대 등도 효과적인 청렴도 강화 노력의 하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2022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에 이어 2023년에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지난 12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주관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한 것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친절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함께 일구어낸 영광스러운 결과"라며, "경기도 내 유일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최우수 청렴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행정 추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대전시 특사경, 생활 안전 밀집 분야 불법행위 집중 단속

1~2월 청소년 보호,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 점검

대전시 특사경은 올 한해 민생을 침해하는 위해요소 근절을 위해 시민건강과 생활안전에 밀접한 8대 분야 중심으로 시기별 맞춤형 단속(수사)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8대 민생 분야는 식품, 원산지, 청소년, 공중위생, 축산물, 의약품, 환경, 부동산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속 계획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위법 행위 재발 방지는 물론,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법질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부터 2월까지 신학기 청소년 보호 및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 영업 행위, 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1팀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유해 약물·매체물 등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월에는 설을 맞이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사2팀에서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발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임목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 및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작년 한 해 895개소에 대한 민생침해범위 단속을 추진했다. 위법 행위 88건을 적발하여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 조치했다.

김원호/기자



최혁수/기자

함안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올해 767여 억원 예산 투입

함안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해 올 한해 7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현재 함안군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7961명으로 전체 인구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과 활기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신체적 기능에 맞춘 의료 제공,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기초연금 지급 등 기본적인 생활보장

군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으로 532억 원을 편성하고, 지원액도 인상에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

부가구 340만 원 이하로 지난해 기준보다 늘어났으며, 월 최대 지원액도 3.6% 인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활기찬 노후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군과 함안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모집한 1825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나뉘며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노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은 함안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2개소로 시니어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응급안전안심도우미사업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발굴해 어르신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선제적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시설 인프라 구축

군은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 등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수행기관 2개소에 132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게 되며 어르신 2000여 명을 선제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 저소득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식사배달사업단을 운영해 27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구 특성에 따라 화재감지기, 움직임 센서에 기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로 건강증진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370개소의 경로당(실버공동체)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등을 분기별로 지원해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47개소의 경로당 건물을 개보수하고, 기 배부된 480대의 공기 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며 노후된 TV, 냉장고 등도 교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날로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수/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경북교육청-경북도청, 유보통합 첫걸음!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일원화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통합'을 앞두고 도교육청 4층 스마트오피스에서 경상북도와 1차 실무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보육 업무를 분석하고 시·군별 보육 사업 현황을 공유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성과 △2024년 추진 과제 △어린이집 업무 이관 분석 △어린이집 기관별 소요 예산 분석 △통합을 위한 준비 우선순위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업무와 예산 분석, 정원 등 이관 범위를 협의하고 하반기에는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유보통합 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경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학교체육 홍보대사 롯데디자인즈 최준용 위촉

롯데디자인즈와 한국 야구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는 최준용 선수가 부산 체육교육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준용 선수를 '학교체육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초, 대전중, 경남고를 졸업한 최 선수는 2020년 1차 지명을 받고 롯데디자인즈에 입단했다.

최고 구속 152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경기 후반을 책임지는 자이언츠 대표 투수이자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부산 야구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최준용 선수는 아침체인지를 비롯한 시교육청의 학교체육 관련 공익 캠페인, 행사 동행(참여), 재능기부 등 학교체육 정책 소통 매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최 선수의 홍보대사 활

동이 부산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프로야구 선수라는 꿈을 이루고, 이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최준용 선수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친근하게 학교체육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적임자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부산교육의 힘찬 걸음에 큰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청소년 스킨스쿠버 해양 체험활동 지원

영덕교육지원청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스킨스쿠버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했다.

1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관내 영덕중학교와 영해중학교 남학생 29명이 해양체험캠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안전교육과 예절 교육을 받고, 센터의 실내 수영장에서 그룹별로 스킨스쿠버 체험활동을 했다.

아간에는 체육활동, 보드게임 등 학생이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집단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했다.

9일 오전에는 해양 끝선벨을 통해 해양에 대한 기본 상식을 배워보는 활동을 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이서진(영덕중)은 영하의 추운 날이었지만 방학 중 친구

들과 모처럼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재우(영해중)는 바다처럼 원대한 꿈을 갖고 중학교 마지막 해를 더욱 알차게 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2023 테마로 만나는 세계이해교육 운영학교 방문

우즈베키스탄 교류학교 방문으로 K-EDU 전파

경북교육청은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2023 테마로 만나는 세계 이해 교육' 운영학교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교류학교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3 테마로 만나는 세계 이해 교육'은 경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소속 각 6개교를 1:1로 매칭하여 스무악 △환경 △미술 △과학 등 학교별 테마로 1년간 공동 수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제교류사업이다.

이번 방문에는 △산양중 △다산중 △포항동성고 △영천성남여고 △한국산림과학고 학생·인솔 교사 24명과 교육청 관계자 3명 등 총 27명이 참가한다.

방문단은 9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타슈켄트 158번 학교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10일 △타슈켄트 교육청 △부하라 42번 학교, 11일 △부하라 주 교육청, 12일 △타슈켄트 문화시설 등을 방문·견학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2023 경상북도 교육청 세계시민 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에 20여 명의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을 초청해 △산양중 방문 △스포럼 현장 발표 △경주발명체험교육관 견학 등

경북교육을 소개했던 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추진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즈베키스탄은 경주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지나가던 거점 지역이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와 인연이 깊은 지역이다"라며 "이러한 역사적 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봉화교육지원청, 2024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 운영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9일까지 2주간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 분관에서 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부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겨울 계절학교는 방학 중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가정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증진을 돕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절학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흥미에 적합한 공예, 요리, 꽃꽂이, 신체 지적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

의력 및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영화관 이용 및 마트 물건 사기와 같은 외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사회 기술 향상 및 새로운 교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영양사과, 영양고추,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락나무숲, 영양서석지

의회 영양군의회

군민과 함께가는

서대문구 직원들의 함박웃음 주민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성현 구청장 새해 각 부서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소통 행보 눈길



새해 들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의 허심탄회한 소통 행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달 5일과 8일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전 직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새해 인사나 덕담을 나누는 것을 넘어 평소 가진 생각들을 바탕으로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근무 공간과 복지, 업무와 인사 등에 관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구청장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 환경과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앞서 이성현 구청장은 새해 첫 근무

일 아침 구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맞은 것으로 시무식을 대신했다. 이어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떡국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또한 신년사를 통해서도 '지역의 변화와 성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땀 흘린 여러분의 노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행복 100% 서대문을 누리는 데 있어 공직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미로 같은 고투몰, 이제 길 해맬 걱정 약속 늦을 걱정 없어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 실내 내비게이션 시작!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친구와 쇼핑을 하기로 한 A씨는 최근 이곳에서 몇몇 불편을 겪었다. 공간을 헤매다 친구와의 약속에 늦은데다 방문하려고 했던 상점을 찾지 못해 기분을 망친 것이다.

서울 서초구는 미로같이 복잡한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일대에서 방문객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실내 내비게이션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고터맵'은 각각의 상점마다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해 공간 데이터 정보를 구축하고, 앱으로 내비게이션을 구현해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모델이다.

서비스 대상지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고투몰 일대 총 31,566㎡ 규모다. 이 곳은 약 630여개의 상점이 복잡하게 들어 있어 방문객들의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인들 또한 이런 애로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며 이 공간의 주소를 알기 쉽게 세분화했다.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 도로와 상점에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정보 전달 장치 150여 개를 곳곳에 설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터맵' 앱은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투몰의 실내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기능은 ▲빠른 길 안내 ▲길 안내 ▲증강현실(AR) 모드 ▲카테고리 검색 등이 있다.

'빠른 길안내'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와 화장실을 안내해 비상 또는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길 안내'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하면, 그 장소까지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길 안내 시에는 음성과 함께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 및 남은 거리도 표시된다.

또, '증강현실(AR)모드'는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 상점을 인식하면 상점 정보가 표시된다. '카테고리 검색'은 출구, 화장실, 음식점, 쇼핑, 편의시설 등을 분류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찾도록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영문 안내, 경로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주행, 주변 날씨 정보 등

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고속터미널역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고, 화재 등 재난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구나 비상구를 쉽게 찾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터맵'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서비스는 추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보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 산업 창출 선도' 시범사업에서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간 운영을 진행했다.

향후 구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 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내부 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일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소방·경찰서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고속터미널 일원부터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고터맵 도입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고속터미널 일대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실내 공간정보 구축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우리 동네 명소, 생활 필수공간 된 '성동형 스마트쉼터'

지난 11월 월평균 30만 명 돌파, 2023년 이용자 수 총 209만 명

서울 성동구의 똑똑한 쉼터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성동구민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가 209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3년 11월 이용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12월에는 35만 명 이상이 스마트쉼터를 이용했다. 약 28만 명의 성동구민이 월 최소 1회 이상 스마트쉼터를 방문한 셈이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기본적으로 버스승차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최첨단을 자랑한다. ▲ 폭염·한파 저감을 위한 냉·난방기 ▲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자외선 공기살균기 및 공기청정기 ▲ 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한 CCTV 원격 관제 ▲ 휴식을 위한 휴대폰 유무선기 충전기, 공공 와이파이 ▲ 도착 버스 안내, 날씨, 미세먼지 지수 등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뛰어나 만남의 장소로 동네 사랑방, 생활속 필수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피난처이자 대피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쉼터 내 보안용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폭력 사건을 경찰과의 공조로 해결한 바 있다. 스마트쉼터를 찾은 치매 어르신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려드리고, 자폐 노숙인의 안전 귀가를 도운 사례도 있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기능들도 눈에 띈다. 지난 7월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스마트쉼터 1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 이어 8월에는 청각 약자를 위해 47개소에 히어링루프를 설치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에 대한 편리함은 해외 언론에도 널리 소개되는 한편,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전국 최초로 설치됐던 2020년 8월부터의 누적 이용자 수는 572만 명이 넘는다. 2년에 걸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5%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53개의 스마트쉼터가 운영 중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스마트쉼터는 매월 관리 점검하여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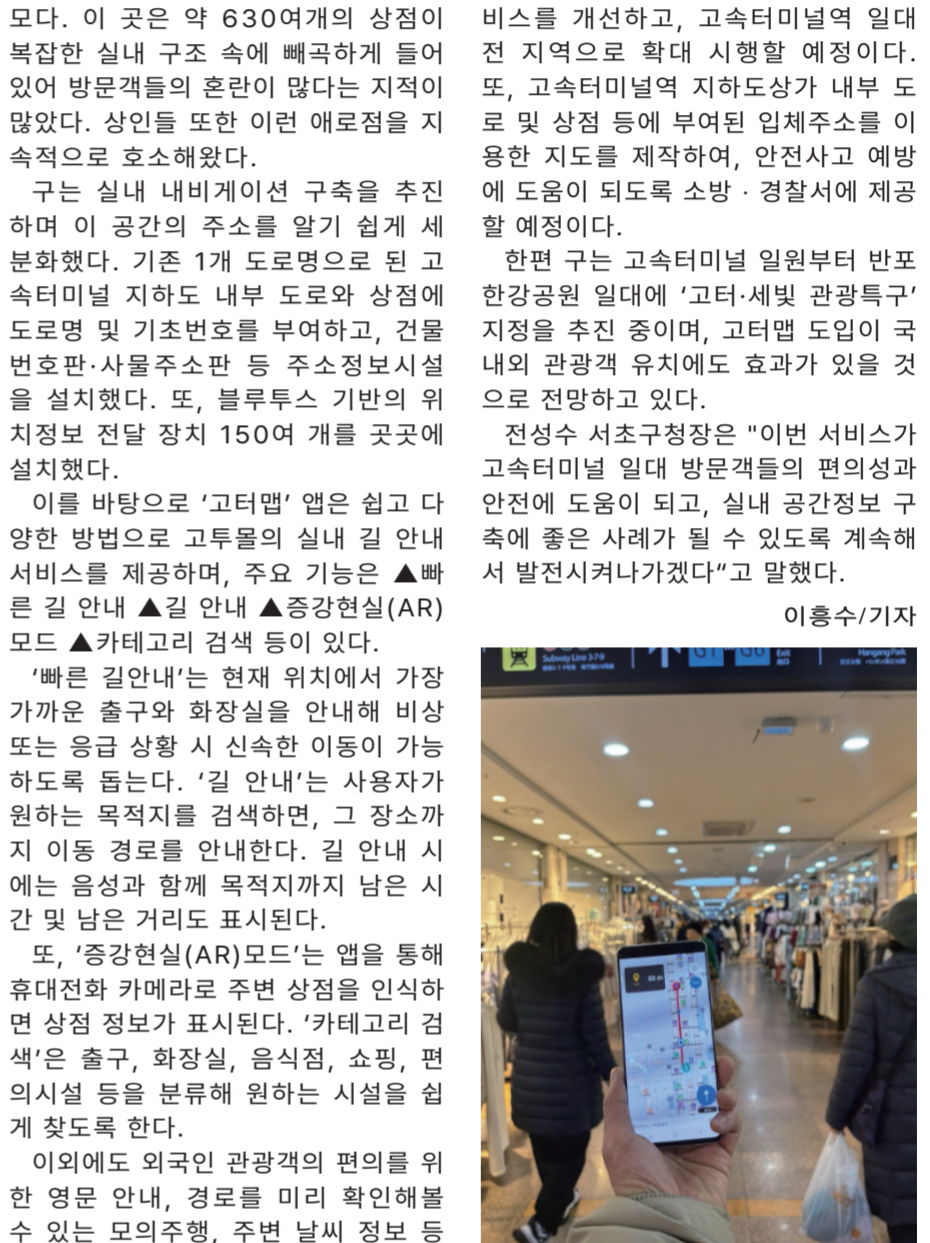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제 성동구



하런 자연스럽게 스마트쉼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스마트쉼터가 주민들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언제든지 둘러 편히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똑똑한 공간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산업안전 경북을 위하여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추락위험 방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 철저

끼임위험 방지

건설기계 등 설비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철저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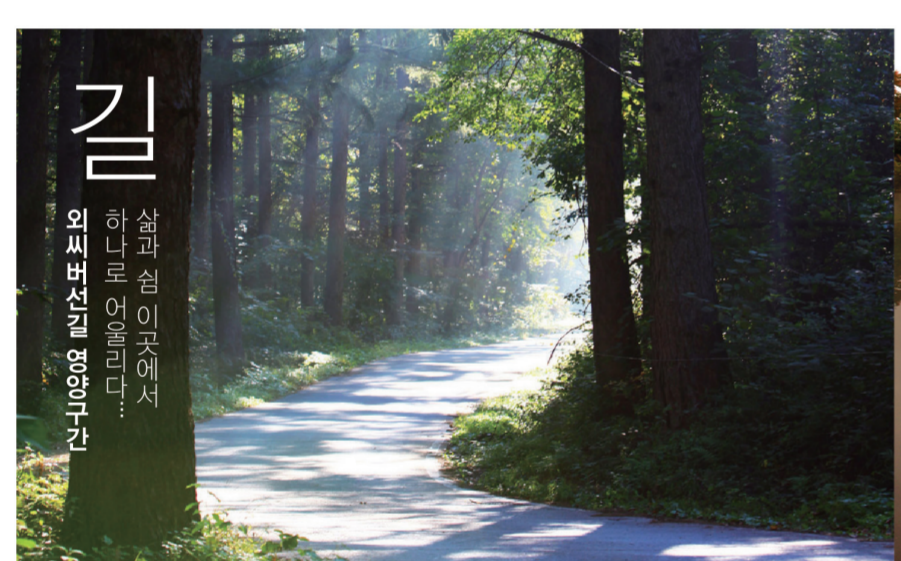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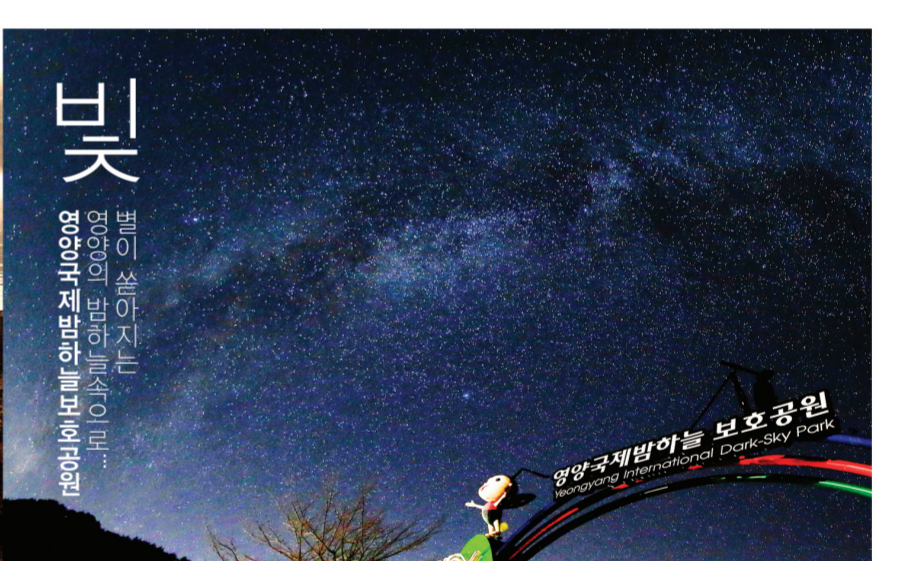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영양이 밤하늘을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